

# 표사적 표현에 나타난 대상 발견의 기제 연구\*

김혜영\*\*

## 1. 서론

7차 교육과정의 국어과 목표는 '창의적'인 언어사용 능력의 신장이다. 표현과 이해의 두 영역을 창의적인 표현과 비판적인 이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어과에서는 창의력을 구성 능력이나 생산 능력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創意的, 創造的, 獨創的이라는 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創'은 '비롯하다', '시작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즉, '創'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다는 의미,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산출한다는 의미 등 처음, 새로움, 발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 창의성을 확산적인 사고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sup>1)</sup>도 '創'이 주어진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를 다양하게 생성해 낸다는 국면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

\* 이 논문은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1) A. J. Cropley, 『교육과 창의성』, 김선 역, 집문당, 1996.

창의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새로움(novelty)과 함께 유용성(usefulness)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유용성이란 소비자들이나 기타의 전문가들이 적절하고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용성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sup>2)</sup> 유용성은 새로움의 범주를 가치 평가적인 것으로 제약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면, 창의성이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한다는 측면과 함께 산출된 아이디어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삶의 틀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중요한 것은 언어사용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에서 창의적인 언어사용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문화 형성의 수단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전제가 되는 언어 역시 현실적인 효용성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언어사용을 논의하는 조건은 어느 정도 제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창의적인 언어사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되었는데 이는 글쓰기에서 아이디어 생성의 과정이 창의적인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4)</sup>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내놓은 다양한 방법들은 궁극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관점의 전환에는 대상에 대한 습관적 인식이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점을 바꿔야만 인식 주체와 대상

2) 김영채,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력의 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1999, 4면.

3) 언어의 창의성을 반복 불가능한 지극, 여기의 맥락에 충실한 것으로 봄으로써 언어의 창의적인 사용 개념을 일상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린 최인자의 논의도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제출된 것이다.

최인자, 「대화주의 이론과 작문교육의 '문화 생산' 모델」, 『국어교육연구』 제7집, 2000.

4) 최근 글쓰기에서 아이디어의 생성 과정에 비유를 두는 일이나 쓸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의 방법이 동원되는 것도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여 새로운 쓸거리를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현행 국어교육에서 창의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의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인식론적 전제가 깔려 있다.

글쓰기에 있어서 관점을 전환하는 일과 관련하여, 관점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사고 작용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인식틀의 전환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관점의 기원을 찾아 들어갈 경우, 관점은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관점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 곧 인식틀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상의 표상 방식의 차이를 인식틀의 선택과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다. 글쓰기에서 작용하는 인식틀은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쓰고자 하는가의 수사적인 범주 안에서 세계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의 방향을 결정한다. 인식틀은 글쓰기에서 대상에 대한 경험을 조직하는 조건이 글쓰기 주체의 세계관과 연관되기보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결합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상 인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사용의 다양한 양상을 조명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의 지배적인 인상을 포착하여 기술하는 방식인 묘사적 표현에 대상의 인식틀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고, 묘사에 나타난 대상 표상의 방법을 분석하여 그 작용 기제를 밝히고자 한다. 대상의 모습을 포착하여 의미화하고 이를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묘사야말로 표상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인식틀의 변화 및 대상 표상의 방식이 대상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원적으로 묘사는 의미를 길게 부풀리는 수단을 뜻하며, 전개를 통한 사유의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묘사적 표현에서는 대상을 간단하게 지적하는 대신에 가장 흥미로운 특성과 상황들을 생생하고 활기차게 드러냄으로써 대상을 어떤 점에서 보여지도록 한다.<sup>5)</sup>

5) 하태환, 「묘사에 관하여」, 『외국문학』 51호, 1997.

문화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통 가능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소통은 어떤 행위를 수행 하도록 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대상이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대상이나 상황을 실제 보고 있는 것처럼 전달하는 묘사적 표현에서는 대상의 특성을 포착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는데, 관습적인 대상 인식으로는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대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묘사적 표현이야말로 인식들이 선택 가능하다는 점과 선택된 인식들에 의해 대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결정됨을 보여주며 나아가 인식들의 선택이 대상에 대한 보편적인 전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와 같이 언어, 주체, 대상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묘사적 표현 방식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먼저 존재하고 이를 언어화 한다는 글쓰기의 전제를, 인식들이 먼저 존재하고 이를 통해 대상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환한다. 본 연구는 성천 지방의 여행을 소재로 한 이상의 수필을 대상으로 하여 묘사적 표현이 대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양상을 분석, 묘사적 표현에 작용하는 대상 발견의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성천에 관한 수필들은 동일한 지역의 체험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관점에서 성천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묘사적 표현에 작용하는 인식의 전환 방식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6) 대상에 대한 이해 전반을 인식으로 본다. 인식은 대상에 대한 감각 작용을 강조할 때에는 지각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을 조직하고 조절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통각으로 구분하여 쓴다. 그러니까 지각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의 차원에서, 통각은 대상에 대한 판단의 차원에서 사용한다.

## 2. 인식틀 선택의 조건

기행 형식에서는 주체의 관점에 포착된 여행지의 색다른 정취를 표현하기 위해 묘사가 동원된다. 성천 체험을 담은 이상의 수필을 보면, 도시 출신인 이상에게 있어서 성천이 얼마나 낯선 곳이었는가를 묘사한 부분이 자주 눈에 띈다. 묘사적 표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대상의 묘상을 추동하는 인식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이다. 소재가 된 성천의 풍경을 묘사하는 방식을 매개로 하여 이상 수필에 나타난 인식틀이 무엇인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산골에 가을은 무르녹았다.

아람드리 노송은 백백이 늘어박혔다.

새새이 끼인 도토리, 벚, 돌배, 갈잎들은 울긋불긋. 잔디를 적시며 맑은 샘이 졸졸거린다. 산토끼 두 놈은 한가로이 미주앉아 그 물을 할짝거리고 이따금 정신이 나는 듯 가랑잎은 부수수하고 떨어진다. 산산한 산들바람. 귀여운 들국화는 그 품에 새뚝새뚝 넘는다. 흙내와 함께 향긋한 땅김이 코를 찌른다. 요놈은 싸리버섯, 요놈은 잎 썩은 내, 또 요놈은 송이-아니, 아니, 가시녕쿨 속에 숨은 박하풀 냄새로군.<sup>7)</sup>

2)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공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sup>8)</sup>

7) 김유정, 「만무방」,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1993, 283면.

8)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위의 책, 219면.

3) 수수깡 울타리에 ‘오렌지’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당콩넝쿨과 어우러져 ‘세피아’빛을 배경으로 하는 一幅의 屏風입니다.<sup>9)</sup>

위의 예문은 모두 농촌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을 묘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에서는 농촌의 풍경이 있는 그대로 묘사된 반면 2)에서는 ‘짐승같은’ 혹은 ‘소금을 뿌린 듯한’ 등의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수사적 장치는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동원된다. 1)은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면서 노송에서 박하풀까지 대상의 세부적인 모습을 그려 보여주지만 대상이나 대상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적인 언어사용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특정한 인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와 비교할 때 2)의 감각적인 묘사의 방식은 마치 대상을 직접 지각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색깔을 중심으로 하여 여주를 묘사한 3)에 이르면 묘사가 단순히 독자의 지각을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3)의 글이 2)의 글처럼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과 유사하거나 인접해 있는 것에서 비유의 소재를 끌어오지 않고 대상의 시각적인 이미지만을 분리시켜 이에 대한 인상을 통해 대상을 재규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인 관련성으로부터 이미지를 구성해 가는 2)와는 달리 3)은 대상을 전체로부터 분절하여 지각하고 분절된 지각으로 대상을 규정한다. 오렌지빛은 유자의 빛깔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되었지만 이러한 묘사의 방식은 오렌지와 유자를 병치시킬 뿐만 아니라 유자를 기존의 이해로부터 분리시킨다.

성천의 묘사가 갖는 이러한 전복성은 농촌에 대한 선이해에 바탕을 둔

9) 김윤식 엮음, 『이상문학전집 3』, 문학사상사, 1993, 106면.

다. 농촌은, 인간의 본래적인 고향을 의미하는 장소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근대화에 의해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촌은 도시 생활의 결락 부분을 메운다는 충족의 장소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의 삶은 인간의 본래적인 관계, 즉 자연과 인간의 공동체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소적 아우라를 형성한다. 현실적으로 농촌 역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 이해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갈등이 교섭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동경을 농촌의 삶에 투사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의 결핍과 이에 따른 화해로운 세계에의 지향이 농촌을 인간이 돌아가야 할 선택적인 고향으로 대체하게 된다. 성천에 관한 이상수필의 독특한 점은 이러한 농촌에 대한 선택적인 가치 평가와 대립된 관점을 취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수필에 나타난 묘사적 표현과 다른 글의 묘사적 표현을 비교한 결과, 이상이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한 인식틀이 일관되게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틀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분법적 틀은 세계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틀의 근간에는 그와 대립되는 것을 매개하지 않고서는 대상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 즉 하나의 대상은 그것과 다른 것의 차이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차이가 인식틀의 선택 조건이 될 때,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의 구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발견하고 차이를 결합하는 방법에 있기 때문이다.

인식틀이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중심과 주변의 경계짓기에

10) 이에 대해 김윤식은 선조적인 세계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당시의 글쓰기에서 이상은 공간적 병치 방식의 도입을 감행했다고 본다. 서울과 성천의 공간 개념은 동경행 이후 동경과 서울의 공간개념으로 전환된다.

김윤식,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8, 99면.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인식틀을 바꾸면 중요성의 질서도 전복될 수 있다. 성천에 관한 이상의 수필에서 선택한 이분법적인 틀은 성천이 속해 있는 질서와 체계로부터 성천을 분리함으로써 성천이 갖고 있던 내적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이는 루카치가 묘사에서 경계했던 세부적인 것, 주변적인 것들의 자율성과 연관된다. 루카치는, 묘사가 대상을 전체로부터 분리시켜 이해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똑같이 주목을 받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sup>11)</sup> 본 연구에서는 루카치의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시각을 달리하여, 묘사에서 중심/주변의 해체가 가능한 이유를 묘사 양식이 인식틀 선택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처럼 묘사에서 인식틀의 선택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묘사가 주관적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글쓰는 주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3. 인식틀 선택의 자의성

성천에 관한 이상의 수필에는 대상이 기존의 인식틀 안에서 묘사되기도 하지만 이를 대체하여 새롭게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식틀의 선택이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이상이 성천을 바라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신기함, 새로움, 놀라움의 대상으로 성천을 바라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지루하고 의미 없으며 권태로운 대상으로 성천을 바라보는 경우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상이 성천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했다는 점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상반된 포착

11) G. 루카치, 『서사나 묘사나』, 『리얼리즘과 문학』, 김복순 역, 지문사, 1985, 200~205면.



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이 존재하고 이러한 지각이 상황의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씌어진 것으로 보이는 성천에 관한 수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죽기 전 동경에서 씌어졌다는 「권태」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시기에 씌어진 것으로 보이는 글에서 대상 인식의 균열이 발견된다는 것은 대상 인식과 글쓰기 사이의 거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다음의 예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바를 발췌한 것이다.

1) 나직한 草家지붕마다 호박덩굴이 덮이고, 탐스런 호박이 매달려 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노랗고 못생겼으며, 자꾸만 꿀벌을 불러대고 있다. 자연의 센슈얼한 部面-

집 뒷결에는 옥수수가, 이것만은 들쭉날쭉으로 서 있다. 커다란 이삭을 몇 개고 달고는 가을풀들 사이에 유난히 키가 크다.

지난 해처럼 옥수수는 푸짐하게 익어, 더욱더 술한 朱紅빛 수염을 바람에 나부끼고는, 초가을 고추잡자리 나는 하늘에 잎쓸리는 흥겨운 소리를 울렸다.

그리고 옥수수 수수깡을 둘러친 올타리엔, 黃金빛 탐스런 호박이 어떤 蹴球공보다도 크고 목직하다.<sup>12)</sup>

1') 이 끝으로는 호박넝쿨 그 素朴하면서도 大膽한 호박꽃에 '스파르타' 式 꿀벌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濃黃色에 反映되어 세실 B 데밀의 映畫 처럼 華麗하며 黃金色으로 奢侈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르넷산스' 應接室에서 들이는 扇風機 소리가 납니다.

12) 김윤식 엮음, 「첫번째 방랑」, 『이상문학전집 3』, 문학사상사, 1983.

옥수수밭은 一大 觀兵式입니다. 바람이 불면 甲冑 부딪치는 소리가 우수수 납니다. ‘카-마안’빛 꼭구마가 뒤로 휘면서 너울거립니다. 八峰山에서 銃소리가 들렸습니다. 莊嚴한 禮砲소리가 分明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곁에서 小鳥의 肝을 떨어드린 空氣銃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밭에서 白, 黃, 黑, 灰, 또 白, 가지 各色의 개가 펍 여러 마리 列을 지어서 걸어나옵니다. ‘센슈얼’한 季節의 興奮이 이 ‘코삭크’ 觀兵式을 한 層 더 華麗하게 합니다.<sup>13)</sup>

2) 산은 어젯날과 같이, 自體마저 알 수 없는 새벽녘 빛을 代辯하고 있다. 들은 어제밤 以來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저 밑바닥은, 太陽도 없는 어두운 恐怖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나 無神經한 鈍感 바로 그것인가. 山은 소나무도 없는 闊葉樹만으로써 전혀 幼稚한 資格뿐이다. 이 廣大無邊한 際涯도 없는 洗鍊되지 못한 永遠의 綠色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어디에까지 繼續하고 있는 것인가.<sup>14)</sup>

2') 어서- 차라리- 어둡 버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僻村의 여름- 말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치 길다.

東에 八峰山. 曲線은 왜 저리도 屈曲이 없이 單調로운고?

西를 보아도 벌판, 南을 보아도 벌판, 北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저자고 이렇게 限이 없이 늘어놓였을꼬? 어저자고 저렇게 똑같이 草綠色 하나로 되어먹었노?

農家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左右로 한 十餘戶式 있다.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흠을 주물러 바른 壁 강낭대로 둘러싸인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넝쿨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담사리 나무 오늘도 보는 金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신동이 검둥이<sup>15)</sup>

13) 김윤식 엮음, 「山村餘情-成川紀行中の 몇節-, 위의 책.

14) 김윤식 엮음, 「어리석은 夕飯」, 위의 책.

1)은 「첫번째 放浪」이라는 글로서, 이 글에서는 서울에서 기차로 성천에 도착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출발>, <차창>, <산촌>의 부제를 달았는데 성천에 관해서는 <산촌>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 글에 묘사되어 있는 성천의 풍경은 그리 독특하지 않다. '탐스런', '노랗고 못생겼다' '축구공보다 크고 묵직하다' 등의 묘사는 호박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을 넘어서지 않는다. 또한 옥수수에 관한 묘사 역시 '키가 크다', '푸짐하게 익다' 등 기존의 인식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투적인 것이다. '탐스럽다', '푸짐하다'와 같은 표현은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에 대한 경이를 동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에 이르면, 노랗고 못생긴 호박꽃은 소박, 대담, 화려, 사치한 꽃이 된다. 이처럼 호박꽃을 대담하면서도 화려하고 사치한 꽃으로 변화시키는 매개는 황금빛이다. 여기에서 호박꽃에 대한 묘사는 농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호박꽃에 대한 이미지, 소박하며 예쁘지 않은 꽃이라는 이미지를 정반대의 것으로 바꿔놓는다. 이러한 이미지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호박꽃의 의미보다는 호박꽃의 한 부분, 특히 호박꽃의 색깔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호박꽃의 황금빛이 전경화될 때, 호박꽃은 사치한 르네상스의 응접실이 될 수 있다. 옥수수는 병정들이 서 있는 모습으로, 옥수수 밭에 바람 부는 소리는 갑옷과 투구 부딪치는 소리로 인식하는 것도 기존의 인식 방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고 하겠다.

이제 1)에서 1')로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시간의 변화 혹은 심리적인 변화 등의 상황 요인이 묘사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1')의 글이 1)의 관점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를 어떤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 대상에 대한 인

15) 김윤식 엮음, 「권태」, 위의 책.

식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기존의 대상 인식의 틀을 전복시키는 이상의 묘사 방식이 성천을 보고 느낀 시각의 직접적인 반영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경의선 밤열차를 타고 성천을 향해 가는 모습부터 성천에 도착하여 바라본 성천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는 1)의 글이 수사적인 기교 없이 담담하게 기술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처음부터 성천을 도시와 대립적으로 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성천의 권태로운 모습을 그린 2)과 2')의 글에서도 이러한 인식들의 구조에 대해 조감할 수 있다. 2)에서 보여준 활엽수만 있는 팔봉산, 광대무변하고 영원한 녹색은 2')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질감을 얻는다. 2')에서 표현된 성천의 모습이 보다 권태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2')의 묘사 방식이 정교하기 때문이다. 여름날의 길고 지루함에서 시작하여 팔봉산의 단조로움, 오직 초록으로 둘러싸인 벌판, 농가의 흙벽, 울타리, 호박넝쿨, 어제와 오늘, 내일 만나는 사람이 똑같은 것 등으로 치밀하게 성천의 단조로움을 묘사한다. 1)이나 2)와 같이 일상적인 시각에서 성천을 기술한 글을 보면, 이상이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성천의 풍경을 새롭게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주장<sup>16)</sup>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보다는 이상이 성천을 새롭고 놀라운 곳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성천을 새롭고 놀라운 곳으로 받아들였다는 것과 표현했다는 것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내재해 있다. 성천에 관한 수필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직접 대상을 보면서 기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묘사의 형식적 조건이 대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을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기억 속에 저장된 시각을 불러들여야 하며 이렇게 불러들여진 시각은 장

16) 김윤식, 앞의 책, 98면.

르, 글의 목적 및 의도 등의 상황 변인에 따라 변형을 거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의 수필 속에 표현된 성천 체험은 이상이 성천에서 경험한 지각 자체의 재현일 수는 없다.

객관적인 상황 변인 외에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과 표현된 것을 매개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식들의 개입을 문제삼아 왔다. 글쓰기 과정에서 기억의 형태로 저장된 대상에 대한 경험을 글쓰기의 조건에 맞는 형태로 변형하는 인식들이 직접적인 지각과 표현을 매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적 틀은 지각 차원에서 작용하는 틀이 아니고 글쓰기의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수사적인 틀이 된다. 농촌과 도시의 틀은 다시 새로운 권태의 틀로 분화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식들의 선택이 자의적이며,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대상의 표상 방식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 4. 대상 발견의 기제

묘사적 표현에서는 대상을 직접 지각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표상의 방식을 동원한다. 이는 묘사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을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묘사의 하위 양식으로 통각 양식을 제시하는 본하임의 경우, 의식 자체의 사실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허구와는 달리 수필은 글쓰는 주체의 진솔한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각과 통각의 구분<sup>17)</sup>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각 양식이 대상에 대

17)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창문 밖에 가로등이 켜졌다. 계산대에서 두 남자가 메뉴판을 읽고 있다. 계산대의 반대쪽에서 너 아담스가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모리엔씨는 하얀 수염을 기른 정중한 매너의 남자였는데, 단추 구멍에다 외국식의 리

한 직접적인 지각을 보여준다면 통각 양식은 지각하고 있는 지각자의 의식, 의지, 판단이 개입된다.<sup>18)</sup> 본하임은 이러한 구분의 준거를 칸트로부터 찾는다.

지각적 경험 판단과 객관적인 경험 판단을 구분한 칸트에 따르면 지각적인 경험 판단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다양하며 인상적인 속성을 통일시키는 계기를 통각에서 찾는다. 통각이란 지각된 것에 대한 이차적인 통찰을 의미하며 지각하는 사람의 의식이 포함된다. 인상적이고 다양한 지각이 '내가 생각한다'는 것(the I think)로 통합되는 작용이 통각이다. 그러므로 통각은 객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인식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sup>19)</sup>

지각과 통각의 구분은 대상을 표상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의 문제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지각에 의한 묘사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객관적이고 상황에 대한 그대로의 재현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로서, 관찰자가 자신의 존재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 통각적 묘사에서는 글쓰는 주체가 자신이 인식한 것을 일정한 관점으로 통제하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대상을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인식을 조작하고 조정한다는 입장이 개입된다. 이로 인해 통각적 묘사는 일상적인 인식에 개입하여 이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

---

본-이것은 하인들이 쫓는 리본임을 펴버튼은 마침내 알게 되었다. 을 쫓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시중들어야 할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투였는데, 이것이 바로-다른 많은 것 중에서도-모리엔 씨의 매너가 결코 신뢰할 것이 못된다고 하는 이유이다. 확실히 믿어도 좋을 것은 바로 그가 여러분이 제인 먼저 이 세상에서 몰아 내고 싶은 또 한사람이라는 것이다.”

전자는 헤밍웨이의 「살인자들」에서 발췌한 글로 지각을 전달하는 글이며, 후자는 헨리 제임스의 「제자들」의 일부로서 통각 없는 지각을 허용하지 않는 글의 예이다.

H. 본하임, 『서사양식-단편소설의 기법-』, 오연희 역, 예림기획, 1998, 58면에서 재인용.

18) H. 본하임(오연희 역), 위의 책, 57면.

19) S. 피르너, 『칸트의 비판철학』, 강영계 역, 서광사, 1983, 68~73면.

졌다. 묘사에는 대상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대상에 대한 기술에 글쓰는 주체의 관점을 포함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구분이 갖는 의의는 분명하다.

그런데 대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기존의 관습적인 대상 인식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데 묘사 양식의 지향점이 있다고 할 경우, 객관적인 묘사의 지각과 주체 개입의 묘사로서의 통각 양식은 대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묘사 양식의 추구를 설명해 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지각과 통각의 의미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곧 묘사에서 대상을 표상하는 방식을 지각과 통각으로 구분하고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대상 표상 방식으로는 지각<sup>20)</sup>을, 통각은 일상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차원의 표상 방식으로 보는 방법이 그것이다. 지각적 차원의 묘사는 대상을 보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으로, 이러한 묘사 방식에서 보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의 거리는 느껴지지 않는다. 지각적 차원의 묘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이 있다’는 대상의 존재론적 국면이다.

지각적 차원에서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존재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대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있다’는 존재론적 위상은 ‘…을 본다’는 지각적 차원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 대상에 대한 지각은 대상의 존재를 넘어설 수 없다. 대상을 ‘…이 있다’, ‘존재한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과 표현 사이에 차이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마치 인식들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지각적 차원의 묘사에서는 대상의 존

20) 여기에서의 지각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 혹은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차원에서의 지각은 아니다. 이 경우는 통각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다시 말해 대상을 객관적인 상황에서 직접 보고 기술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보았다. 개념상의 혼동에도 불구하고 지각으로 표현한 이유는 지각이라는 개념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 직접성의 구현이 묘사의 방식으로서의 지각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 자체를,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일상적인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데 지각적 차원의 묘사가 대상의 존재를 포착하고자 하지만 충분히 그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익숙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리 때문이다. 익숙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상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일상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글 쓰는 주체의 판단을 개입시킨다. 이를 통각적 차원의 묘사라고 부를 수 있다. 통각이란 ‘...로 보기’라는 특성의 인식들에 의해 매개된 인식의 상태를 말한다. 이는 비트겐슈타인의 ‘...로 보기’와는 차원이 다르다.<sup>21)</sup> 비트겐슈타인의 ‘...로 보기’가 대상에 대한 인식과 결합되어 있는 조직<sup>22)</sup>을

21) 비트겐슈타인은 토끼와 오리의 두 가지 상을 가진 토끼-오리 도형을 통해 이것을 토끼로 본다는 것은 토끼의 상을 지각하는 것이고 오리로 볼 경우에는 오리의 상을 지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으로 봄’ 혹은 상의 인지라 부른다. 상이란 시각 조직의 유형이며, 상의 변화는 시각 조직의 변화라는 점에서 우리가 상의 변화를 전후하여 다른 것을 보는 것은 보여진 것을 다르게 조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직 방식의 차이는 존재의 차이까지 수반한다. 예를 들어 토끼는 알지만 오리는 모르는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각적 존재론은 토끼만을 존재 가능한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다. 반대로 오리는 있지만 토끼는 없는 세계도 가능하다. 이러한 언어 조직 방식에 따른 존재론의 변화는 동일한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집합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속성이 발견되면 그 집합을 나타내는 용어의 외연 안에서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이전에 없었던 존재의 생성이나 이전에 있었던 존재의 사멸을 의미한다고 한다.

김보현, 『비트겐슈타인과 봄』, 『언어철학연구 I 비트겐슈타인과 언어』, 현암사, 1996, 330~335면.

L.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서광사, 1994, 288~340면.

22) 비트겐슈타인은 시각 경험의 기준은 개인 내부의 사적 대상으로서의 시각 인상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대한 기술이라고 논증한다. 곧 비트겐슈타인은 봄이라는 지각에는 본 것을 조직하는 방식이 포함되며 본 것을 조직하는 방식에 의해 봄의 차이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로는 해석을 통한 간접적인 기술을 대체할 만한, 보다 직접적인 기술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기술하는 감각 인상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지성적인 판단이 첨가되지



문제삼는다면, 통각 차원에서의 ‘...로 보기’는 대상에 대한 인식<sup>23)</sup>을 관점을 달리하여 변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상을 어떤 것으로 본다는 말에는 대상의 어떤 측면을 발견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다시 말해 ‘...으로’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일정하게 변경한다는 것이며, 이렇게 변경시켜 봄으로써 대상의 새로운 측면이 발견하려는 의도를 포함한다.

이상 수필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경하는 방법은 대상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이미지를 변경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대상이 갖고 있는 새로운 국면의 발견에 있다. 여기에서 묘사적 표현이 대상이 가진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유와 이처럼 대상의 이미지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포착하여 기술하는 묘사적 표현에서 인식 주체와 대상을 매개하는 것은 대상의 이미지이다. 주관적 인상이란 이미지로 존재하며, 글쓰는 주체가 본 것을 독자가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이미지에 의한 전달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주체가 대상을 지각할 때 대부분 기억에 의해 직관을 고정시켜 관습화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니까 대상을 지각할 때에도 대상 자체를 지각하기보다는 관습화된 대상의 이미지를 지각한다.<sup>24)</sup> 대상을 보여주기 위해

---

않은 순수 감각 인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을 인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합 속에 분류하여 인식하고 이와 같은 집합의 편성 방식이 곧 언어를 통해서 이 세계를 조직하는 방식이 된다.

김보현, 앞의 글, 현암사, 1995.

- 23) 여기에서 대상에 대한 인지란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직접적인 기술 차원의 인지는 아니고 지성적인 판단이 첨가되어 있는 인지이다. 그러므로 대상에 대한 인지는 대상에 대한 선이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 24)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대상의 낯설게 하기의 방식을 들은 것도 지각의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에서는 우리의 지각이 관습화된 방식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대상에 대한 낯설게 하기를 통해 대상을 새롭게 지각하도록 유도한다.

서는 대상의 속성을 포착해야 하는데 관습적인 대상 인식의 방법으로는 일상적인 대상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다. 인식틀을 바꾸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중심적 이미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된다.<sup>25)</sup>

여기에서 대상이 가진 이미지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상의 이미지를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대상과 대상이 표상하는 것 사이의 견고한 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천을 소재로 한 수필에서 성천의 고유한 이미지가 도시적인 이미지로 대체된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묘사적 표현은 대상의 이미지를 교체하는 방법을 통해 사물과 언어의 경계 부분에 천착한다. 이미지의 변경이 대상의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상에 대한 묘사에서 전제하는 대상 인식이 대상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미지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무한한 반사성 속에 의미를 생성한다. 본다는 행위 속에는 주체와 객체, 동일자와 타자, 상상과 실재, 안과 밖,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교환이 일어나는데,<sup>26)</sup> 이에 따라 묘사적 표현은 관습화되어 익숙한 표현이 전제하는 대상의 존재를 새로운 영역 안으로 자리매김한다. 묘사는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이러한 이미지의 교체에서 오는 대상의 변형 사이에서 의미가 형성됨을 보여줌으로써 의미가 대상과 언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25)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는 관습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구술문화에서 대상에 대한 묘사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도식적인 틀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문자문화로 넘어오면서 대상에 대한 묘사의 방식은 개별화된다. 이러한 개별화를 이룰 수 있었던 계기는 주체 중심의 세계관과 시공간적인 맥락의 침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6) 김용희, 「이미지란 무엇인가, 이미지의 변신론」, 『비평』 5호, 2001 가을호, 생각의나무, 88면.

## 5. 결론

이 논문은 성천 지방에서 머물렀던 경험을 소재로 한 이상의 수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묘사적 표현에 나타난 대상 발견의 기제를 탐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언어사용이란 대상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것과 관련됨을 밝히고, 사고의 영역보다는 인식틀 차원에서 관점의 문제에 접근하였다. 묘사적 표현에 나타난 지배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점이라는 점에서 지배적인 인상을 포착하여 기술하려는 묘사적 표현에는 대상의 표상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개입해 있다고 본 것이다.

성천 지방을 소재로 한 이상의 수필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적인 구도 하에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상이 성천을 인식함에 있어 무조건 도시적인 관점을 인식의 틀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씌어진 것으로 보이는 성천에 관한 수필을 보면, 일상적인 관점으로 성천을 묘사한 수필과 익숙한 관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하에 성천을 묘사한 수필이 있다. 이는 글쓰기의 전제가 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 차원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지각을 조직하고 변형하는 차원에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를 낳는다. 이를 묘사적 표현 영역에 국한하여 지각 차원에서 대상을 묘사하는 경우와 통각 차원에서 대상을 묘사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지각 차원에서 대상을 묘사하는 경우란 마치 아무런 매개 없이 대상을 직접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통각 차원의 묘사에서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결합되어 대상을 ‘...으로’ 본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통각 차원의 묘사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이 부각되는 만큼 대상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분명

하게 제시된다. 이 논문에서 주목했던 것은 통각 차원의 묘사이며, 이러한 통각 차원의 묘사에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발견하려는 의도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통각 차원의 묘사에는 대상에 대한 인식들을 변경하기 위해 대상의 이미지를 대체, 변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이러한 이미지의 교체에서 오는 대상의 변형 사이에서 의미가 생성된다.

본 연구는 창의적인 언어사용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묘사적 글쓰기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를 제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먼저 창의적인 언어사용의 문제는 관점의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인식들 차원에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언어 속성상 또는 언어와 사고의 연관성 때문에 언어사용에 있어서 창의성을 다루는 문제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인식들은 언어사용의 수사적 조건 안에서 대상의 해석 방식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상에 대한 경험과 표현 사이에 내재하는 틈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현행 글쓰기 교육처럼 경험과 표현(글)의 일치를 추구하는 패러다임 안에서는 경험을 자의적으로 변형시키는 표현의 방식에 대해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인식들은 경험의 고유성, 진정성을 탈맥락화하며, 경험한 것과 표현한 것 사이의 틈을 변형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으로 볼 수 없었던 대상을 발견하는 틈이 된다. 인식들의 변형을 통해 대상의 발견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언어사용에서 창의성을 논의하는 지평이 되는 것은 바로 주체 중심적인 패러다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창의성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칫 대상의 전체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묘사는 서사, 설명, 논증과 같은 서술 방식의 한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작문 교육에서는 묘사적인 글쓰기를 위해 대상에 대한 지배적

인 인상을 통해 그리듯이 대상을 기술하도록 가르친다. 지배적인 인상이란 글쓰는 주체가 대상으로부터 받는 지각의 측면을 의미하게 되면서, 묘사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대상의 지각을 그대로 언어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 묘사적인 글쓰기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지각의 문제에 있었고 이를 언어화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었다고 하겠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직면하게 되는 제약을 피하기 위해 인식틀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묘사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인식틀은 지배적인 인상이라는 용어가 갖는 경험적 측면을, 글쓰기 과정에 개입하는 수사적인 조건 및 해석의 틀로 변형시킴으로써 묘사를 대상 발견의 양식으로 자리매김한다.

## 참고 문헌

- 김윤식 엮음, 『이상문학전집 3』, 문학사상사, 1993.  
 김유정, 이효석, 『정통한국문학대계』, 어문각, 1993.
- 김보현, 「비트겐슈타인과 봄」, 『언어철학연구 I 비트겐슈타인과 언어』, 현암사, 1995.  
 김영채, 『창의적 문제해결,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1999.  
 김용희, 「이미지란 무엇인가, 이미지의 변신론」, 『비평』 5, 2001, 가을.  
 김윤식, 『이상 문학 텍스트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8.  
 최인자, 「대화주의 이론과 작문교육의 '문화 생산' 모델」, 『국어교육연구』 제7집, 2000.  
 하태환, 「묘사에 관하여」, 『외국문학』 51호, 1997.
- Bonheim, H., *The Narrative Modes: Techniques of the Short Story*, 오연희 역, 『서사양식-단편소설의 기법-』, 예림기획, 1998.

- Cropley, A. J., *Kreativitaet und Erziehung*, 김선 역, 『교육과 창의성』, 집문당, 1996.
- Lukács, G., "Narrate or describe?!", *Writer and Critic*, 김복순 역, 「서사나 묘사냐」, 『리얼리즘과 문학』, 지문사, 1985.
- 피르너, S. *Kant*, 강영계 역, 『칸트의 비판철학』, 서광사.
- Wittgenstein, L., *Philosophische Untersuchungen*, 이영철 역, 『철학적 탐구』, 서광사, 1994.
- 본하임, H., 『서사양식-단편소설의 기법-』, 오연희 역, 예림기획, 1998.
- 루카치, G., 「서사나 묘사냐」, 『리얼리즘과 문학』, 김복순 역, 지문사, 1985.
- 비트겐슈타인, L.,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서광사, 1994.
- 피르너, S., 『칸트의 비판철학』, 강영계 역, 서광사, 1983.
- 크로플리, A. J., 『교육과 창의성』, 김선 역, 집문당, 1995.

■ Abstract

A study on the object-finding mechanism embodied  
in descriptive expression

Kim, Hye-young

The paper has its purpose to search an object-finding mechanism from a miscellany written by Lee Sang, which contains his experience staying at Seongcheon, a local village. For the purpose, I have suggested the creative linguistic usage has relation with a conversion of viewpoint to an object, and then approached it with a signaling method instead of a field of thought for the object. First of all, I began with that a viewpoint is an affective one for an overwhelming impression in descriptive expression and assumed that the descriptive expression through the impression intends to converse the objects signaling method. A miscellany from Lee Sang, as we may identify, recognizes the object by a dichotomous structure of urban and farming area. The author, Lee has a viewpoint of urban area in it. More important thing is that he did not recognize it in the viewpoint without condition and/or reason. There are contemporary miscellanies or essays about Seongcheon, which divided into ones in general view and the others in beyond it.

Again they may divide into ones to describe the area with perception and the others to describe it with their experiences. The former is to describe an object as an author recognizes it directly. The latter is to describe particularly the object like something in connection with recognition and interpretation. The latter, that is to say, is a subjective viewpoint, and in due course it suggests some trial beyond the

existing views. The paper focused on the latter description, in which I assumed that intent to discover an object would be realized. The latter method of experience utilizes a method to replace or converse an object in order to change confirmed images of the object. Consequently general image of an object and its conversed additional images create another meaning from the object. Finally, the paper has its significance that the above-mentioned method to converse objects image may be a principle to write creatively and the existing descriptive writing would be changed from a writer to linguistic part in its direction.